

0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잔등」에서 서술자인 '나'는 해방 전후 우리 사회의 모습을 냉정하게 인식하기 위해 대상과의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잔등」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제삼자의 정신'이란 말은 이를 암시한다. 또한 귀로에서 접한 인물들을 통해 같은 인간으로서 지니는 측은지심을 드러냄으로써 관용의 정신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노인이나 잔류일본인 등과의 만남은 주목할 만하다.

- ① '일본인 아낙네'의 아이들이 '야단'인 모습을 '비참'하다고 한 것에서, '나'의 객관적 태도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
- ② '일본인 아낙네'가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행상로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린 것에서, '나'가 '노인'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음을 알 수 있어.
- ③ '노인'이 자신의 자식을 죽인 사람들의 처지가 바뀐 것을 보고 '눈물'이 난다고 한 말에서, '노인'이 그들에 대해 연민을 느꼈음을 알 수 있어.
- ④ 잔류 일본인에 대한 '노인'의 마음을 '측은한 표현'이라 한 것에서, '나'가 제삼자의 정신에서 벗어나 관용의 자세까지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⑤ '일본인 아낙네'가 '실심한 사람 모양으로', '행상의 여인네'의 '손가락을 멀거니 바라만 보고 있'는 모습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숨을 죽이고 지그시 아픔을 견디며, 또 하나의 아픈 날을 회상한다. 꼭 이만큼이나 아팠던 날을.

그것은 아마 나의 고가(古家)가 헐리던 날이었을 게다.

남편은 결혼식을 치르자 제일 먼저 고가의 철거를 주장했다. 터무니없이 넓은 대지에 불합리한 구조로 서 있는 **음침한 고가**는 불필요한 방들만 많고 손댈 수 없이 퇴락했으니, 깨끗이 헐어 내고 대지의 반쯤을 처분해서 쓸모 있는 **견고한 양옥**을 짓자는 것이었다.

너무도 당연한 소리였다. 반대할 이유라곤 없었다.

**고가**의 철거는 신속히 이루어졌다. 나는 그 해체를 견딜수 없는 아픔으로 지켰다.

우아한 추녀와 드높은 용마루는 헌 기왓장으로 해체되고, 웅장한 대들보와 길들은 기둥목, 아른거리던 바둑마루는 허술한 장작더미처럼 나자빠졌다.

술한 애환을 가려 주던 <亞> 자 창들이 문짝 장사의 손구루마에 난폭하게 실렸다. ㉠ **남편은 이런 장사꾼들과 몇 푼의 돈 때문에 큰소리로 샅대질까지 해 가며 영악하게 흥정을 했다.**

남편 하나는 참 잘 만났느니라고 사돈댁 - 지금의 동서 - 은 연신 뼈드러진 이를 드러내고 내 등을 쳤다.

이렇게 해서 나의 고가는 완전히 해체되어 몇 푼의 돈으로

바뀌었나 보다.

아버지와 오빠들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집, 어머니가 임종의 날까지 그렇게도 집착하던 고가. 그것을 그들이, 생면부지의 낯선 사나이가 산산이 해체해 놓고 만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고가의 해체는 행랑채에 구멍이 뚫린 날부터 이미 비롯된 것이었고 한번 시작된 해체는 누구에 의해서고 끝막음을 보아야 할 것 아닌가.

다시는, 다시는 아침 햇살 속에 기왓골에 서리를 이고 서 있는 **숙연한 고가**를 볼 수 없다니.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육신이 해체되는 듯한 아픔을 의연히 견디었다. 실상 나는 고가의 해체에 곁들여 나 자신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남편이 쓸모없이 불편한 고가를 해체시켜 우리의 새 생활을 담을 새 집을 설계하듯이, ㉡ **나는 아직도 그의 아내로서 편치 못한 나를 해체시켜, 그의 아내로서 편한 나로 뜯어 맞추고 싶었다.**

쓸모 있고 견고한, 그러나 속되고 네모난 집이 남편의 설계대로 이루어졌다. 현대식 시설을 갖춘 부엌과, 잔디와 조그만 분수까지 있는 정원이 있는 아담하고 밝은 집. 모두가 남편의 뜻대로 되었다.

㉢ **다만 나는 후원의 은행나무들만은 그대로 두기를 완강히 고집했다.** 넓지 않은 정원에 안 어울리는 거목들이 때로는 서늘한 그늘을 주었지만 때로는 새 집을 너무도 침침하게 뒤덮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것들의 빛, 그것들의 속삭임, 그것들의 아우성을 가끔가끔 필요로 했다.

㉣ **그리고 보니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한 모퉁이가 내 은밀한 곳에 남아 있는지도 몰랐다.**

"옥희도 씨 유작전이 있군."

남편도 지금 그 기사를 읽고 있는 모양이다.

"죽은 후에 유작전이나 열어 주면 뭘 해. 살아서는 개인전 한 번 못 가져 본 분을."

"..."

"흥, 그분 그림이 외국 사람들 사이에 꽤 인기가 있는 모양인데 모를 일이야."

'흥, 잡종의 상판을 헐값으로 그려 준 대가를 제법 받는 셈인가.'

"죽은 후에 치켜세우는 것처럼 싱거운 건 없더라. 아마 어떤

㉤ **비평가의 농간이겠지..."**

'흥, 당신이 생각해 낼 만한 천박한 추측이군요.'

"에이 모르겠다. 예술이니 나발이니. 살아서 잘 먹고 편히 사는 게 제일이지."

'암, 몰라야죠. 당신 따위가 알 게 뭐예요. 그분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는 걸 당신 따위가 알 게 뭐예요.'

남편은 신문을 떨구고 기지개를 늘어지게 폈다.

㉥ **나는, 젖힌 그의 얼굴에서 동굴처럼 뚫린 콧구멍과 그 속을 무성하게 채운 코털을 보며 잠깐 모멸과 혐오를 느꼈다.**

(중략)

옆에 앉은 남편도 풍선을 쫓았던가 고개를 젓힌 채 눈이 함빡 하늘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뿐, 이미 그의 눈엔 10년 전의 옛된 갈망은 없다. 그뿐이라. 여자를 소유하고 가정을 갖고 싶다는 세속적인 소망외에는 한 번도 야망이나 고뇌가 깃들여 보지 않은 눈. 부스스한 머리가 늘어진 이마에 어느새 굵은 주름이 자리 잡기 시작한 중년의 그가 나는 또다시 낯설다.

저만치서 고등학생들이 배드민턴을 친다. 공이 나비처럼 경

쾌하게 날아와 라켓에 부딪치는 소리가 마치 젊은 연인들의  
찰나적인 키스의 파열음처럼 감각적으로 들린다.

㉠ 나는 충동적으로 그의 이마의 주름 진 곳에 그런 키스를  
퍼부었다.

그가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그가 아주 타인처럼 낯  
선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 박완서, 『나무(裸木)』 -

08.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남편'의 행동은 ㉣에서 '나'가 지키고자 했던 대상을 보존  
하기 위한 '남편'의 배려심이 반영된 것이다.
- ② ㉠에는 '남편'의 행동 묘사를 통해 '남편'의 성격이 드러나 있고,  
㉣에는 '남편'의 외양 묘사를 통해 '나'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 ③ ㉡에는 '나'는 '남편'의 삶에 동화되고자 하지만, ㉢에서 여전히  
'남편'에게 동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 ④ ㉡에는 '남편'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심리가  
드러나 있고, ㉣에는 '남편'을 낯설어하는 '나'의 감정을 변화시  
키고자 하는 돌발적 행위가 드러나 있다.
- ⑤ ㉣에서 드러나는 '은행나무들'에 대한 '나'의 집착은 ㉡에서 나타  
나는 '나'의 잠재의식과 연결된다.

09. **고가** 를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고가** 의 철거 결정에는 '남편'의 실용적인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다.
- ② **고가** 의 철거를 주장한 '남편'은 '견고한 양옥'의 설계에서도  
자신의 뜻을 반영하였다.
- ③ **고가** 의 철거는 '나'와의 친밀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남편'의  
의지가 좌절된 사건을 의미한다.
- ④ **고가** 는 과거의 '나'가 투영된 대상으로 '나'의 의식 속에 환  
기되어 내면의 갈등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고가** 를 '남편'은 '음침한 고가'로, '나'는 '숙연한 고가'로 표  
현하여 인물에 따른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10. <보기>를 ㉡에 대한 '남편'의 속말이라고 가정할 때, ㉢에 들  
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생전에는 주목하지 않던 옥희도를 사후에 높이 평가하는  
것에는 원칙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 (이)라는 말이  
생각나는군.

- ① 모래 위에 쌓은 성
- ② 고양이 쥐 사정 보듯
- ③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④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 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